

■ 논문 ■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 민 경

1. 영제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적 국가의 구현?

영화 <오스트레일리아><sup>1)</sup>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에서 정착민들의 역사를 축약해 보여주는 영화로 시선을 모은 작품이다. 먼저, 남녀 주인공으로 군납용 야생 소들을 잡아 돈을 벌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물고 있던 남편을 만나러 왔지만, 그의 부고 소식부터 듣게 되는 사라 애슐리(Lady Sarah Ashley), 사라와의 안정된 삶보다는 가축 몰이꾼이라는 유랑자 삶을 선호하는 드로버(Drover)가 등장한다. 이들은 영국 상층부 출신 여성 이주민과 백인 남성 소몰이꾼 정착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 사라의 남편 소유인 수 천마리의 소떼들을 빼앗으려 살해음모를 세웠던 경쟁 목축업체 운영자 킹 카니(King Carney), 그리고 농장을 차지하려 카니의 살해 계획에 동참한 목장 지배인 닐 플레처(Neil Fletcher)가 이주민들 사이의 긴장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플레처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봉사해야 했던 원주민 하녀 데이지(Daisy) 및 이 둘 사이의 어린 혼혈아 아들 놀라(Nullah), 그리고 놀라의 원주민 할아버지 킹 조지(King George) 등이 원주민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1) 영화 <오스트레일리아>는 바즈 루어만 (Baz Luhrmann) 감독, 니콜 키드먼 (Nicole Kidman)과 휴 잭맨(Hugh Jackman) 주연의 2008년 개봉작이다.

본고가 글머리에 이 영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봉 당시부터 “진정한 호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또 호주 성립 역사에 대한 비평적 시각과 도의적 책임을 드러낸 영화로 주목되었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줄거리에서 사라에게 양자로 받아들였지만,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혼혈아 격리 정책에 의해 수용시설로 보내지는 놀라의 이야기처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s)에 대한 백인들의 책임”을 이슈화한 영화로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sup>2)</sup>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930년대에서 2차 대전 즈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영제국 식민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실태를 볼 수 있는 작은 편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배경인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6개의 식민지역<sup>3)</sup>으로 구성된 연방정부(Federation of the Colonies)를 형성했고, 이 정부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영제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로 출범하였다.<sup>4)</sup> 이후 1931년, 영국 의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법(Statute of Westminster)에 의해 영국과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1942년까지 이 현장을 비준하지 않았던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의회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합법적으로 자치 독립국가로

- 
- 2) Peter Read, *The Stolen Generations: The Removal of Aboriginal Children In New South Wales 1883 to 1969*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Aboriginal Children Affairs of New South Wales Government, 1981), Foreword; 이석구, 「<오스트레일리아>에 나타난 ‘인정’의 정치학」, 『문학학과 영상』, 가을 (2009): 710. 이 말은 호주 영화 비평가인 리차드 레너드(Richard Leonard)가 언급했던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 역사학자인 피터 리드가 처음 사용한 어휘이다. “도둑맞은 세대”는 백인화 교육을 위해 원주민 부모와 헤어져 강제 수용을 당했던 원주민 혼혈아들을 가리킨다.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수상 케빈 러드(Kevin Rudd)는 이들 애버리지니(Aborigine) 후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 3) Gordon Greenwood, *Australia :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Hong Kong: Agnus & Robertson Publishers, 1978), 192-193: 6개 지역은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 Tasmania,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이다.
  - 4) Graeme Davison, John Hirst, Stuart Macintyre, *The Oxford Companion to Australian History*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3-244; 영연방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영석, 「제국의 유산-‘영연방’의 과거와 현재, 1880-2000」, 『영국 연구』 25 (2011), 235-263을 참고.

만들기 위해 이 헌장을 통과시켰고, 이를 계기로 영국 의회와의 종속적 연결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었다.<sup>5)</sup> 하지만, 완전한 독립적 주권국이 된 것은 1986년 영국 의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 입법에 대한 영국 의회 권력의 종결을 선언한, 소위 ‘오스트레일리아 법(Australia Act)’의 통과 이후이다.<sup>6)</sup>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는 20세기의 과정을 걸치며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전, 영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 정착 시기에는 ‘애보리지니(Aborigine)’라고 불린 원주민들의 저항 및 영국 개척자들의 보복이 반복되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해 오는데 대해 이주민의 집을 포위하고 이주민과 목축 종사자들을 원시적인 무기나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개척자들의 시신을 절단하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주민들은 독약을 담은 밀가루를 공급하거나, 병균이 있는 담요 등을 살포하여 학살하는 보복을 행하였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는 조직적인 ‘인간 사냥’이라고까지 불린, 원주민들을 야생 동물들처럼 살해하는 악명 높은 일까지 자행되었다. 이러한 원주민과의 전쟁은 184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계속되었다.<sup>7)</sup>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같은 원주민에 대한 적대 행위는 여전히

5) 웨스트민스터 법은 법률로 영국 정부가 임명하는 총독 하에 자치 정부를 갖는 해외자치령을 인정한 것이다. 자치령들은 대내외 독립적 권한을 행할 수 있고 외교권을 갖으며, 자치령 주민들은 영국 본국과 왕에 충성으로 단결하는 본국 국민과 평등한 공동체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웨스트민스터 법령을 비준한 것은 영국에 대한 식민지로서의 복종을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http://libproxy.sogang.ac.kr/69acb8d/\\_Lib\\_Proxy\\_Url/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641050/Statute-of-Westminster](http://libproxy.sogang.ac.kr/69acb8d/_Lib_Proxy_Url/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641050/Statute-of-Westminster) (검색일: 2015년 4월 23일); F.G. Clarke, 260, 297.

6)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Acts,”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 (검색일: 2015년 4월 20일); “Australia Act 1986,” Austral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Retrieved 17 June, 2010.

7) F.G. Clarke, 『호주의 역사: 유형지에서 공화국 전야까지』 (*Australia: A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1992), 입찬빈 옮김 (서울: 나남 출판, 1995), 122-123; Manning Clark,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Australia*), 최양희, 문우상 공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0), 79, 102-104; 때로는 원주민에게 술을 먹여 서로 싸움질을 하게하고는 서로 찢어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다.

다른 방식으로 연장되고 있었다. 남아있던 원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선거 의견 표시라는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국가의 인구센서스에서 배제하였던 것이다.<sup>8)</sup> 더욱이 1939년에는 원주민 동화정책(New Deal for Aborigines)이라는 정부 공식 정책으로 원주민 후손들을 차별하기까지 하였다. 원주민 동화정책의 공식적 명목은 ‘시민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면서 원주민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문명화’라는 구실로 혼혈아나 애보리지니 아동들을 백인 가정에 강제 입양시키거나 공동 서식과 같은 장치로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혼혈아들을 강제적으로 분리 차별하였다. 그럼으로써 ‘도둑맞은 세대’의 시민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9)</sup>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인종적 순수성의 유지를 위한 1903년의 백호주의 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의 근간이 된 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으로 타인종의 유입 이민을 제한하였고, 혼인의 통제 및 혼혈인종에 대한 차별을 공적으로 승인하였다. 예를 들어, 1897년 식민청(Colonial Office)은 타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표면상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유럽 언어든 무차별 받아쓰기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민국 관료들은 단지 시험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문제로 선택하여 이들의 이민을 차단하였다. 이 시험은 1901년의 이민제한법 공포에 기초가 되었는데, 이때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심지어 무시되기까지 하였다.<sup>10)</sup> 사실, 이러한 법과 정책들은 순수 영국인 혈통의 유지와 백인 문화 지속이라는 명분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종적 순수함의 유지 및 계몽된 자립 공동체로서의 정서 배양을 위해 1903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채택한 백호주의는 백인인종을 통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통합이 근거했던 사고가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8) Stuart Macintyre, *Cambridge Concise Histories: A Concise History of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44.

9) Macintyre, 145, 186-187.

10) *Ibid.*, 142; R.A. Huttenback, *Racism and Empire: White Settlers and Colored Immigrations in the British Self-Governing Colonies, 1830-191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25-50.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일은 통합된 인종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통합된 인종은 그 구성원들이 섞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혼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쪽도 비하되지 않고 유대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 같은 이상을 향한 염원과 같은 사고로 고무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주도된 같은 특성, 사고, 어조 --- 등등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영제국의 옹호를 위해 제국적 정서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에 그 기초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는 국가적 정책으로 백인 이외의 타인종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맥킨타이어(Macintyre)가 언급한 것처럼, “백인들만의 ‘이상 국가’인 커먼웰스(the Commonwealth)라는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인종주의적 의식을 관찰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sup>11)</sup>

그렇다면, 이 같은 20세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주의적 정책의 근간에 있는 사고는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본고는 제국주의의 확산과 함께 확장되었던 백인의 문명화라는 사고와 함께 20세기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쳤던 우생학 관점의 기존 연구 해석<sup>12)</sup>과는 다른 방향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원주민이라는 식민지 내부의

11) *Ibid.*, 142-143: Macintyre는 백호주의가 이상화한 국가인 커먼웰스(the Commonwealth)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12) 이에 대한 연구로는 Patrick Petitjean and Catherine Jami and Anne Marie Moulin, *Science and Empires : Historical Studies about Scientific Development and European Expans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Lucy Bland, “British Eugenics and ‘Race-Crossing’: a Study of an Interwar Investigation,” *New Formations* 60 (2007), 66-78; Dan Stone, “Race in British Eugenics,” *European History Quarterly* 31, no.3 (2001), 113-157; Douglas M. Peers, “British Imperialism and the Dynamics of Race, Gender, and Class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Radical Historical Reviews* 71 (1998), 164-181; Laura Briggs, *Reproducing Empire: Race, Sex, Science, and U.S. Imperialism in Puerto R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Anna Davin, “Imperialism and Motherhood,” *History Workshop Journal* (1978), 9-66; 국내 연구로는 서종희,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 no.39 (2010), 331-362; 김호연, 「19세기 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 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이화사학연구』 36 (2008), 233-259 등이 있다.

타자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형성과정에서 유입된 외부적 타자인 타인종 이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영국인 이주 정착민들 사이의 관계에 그 뿌리는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틀에서 본고는 영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영국인들의 이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 과정과 영국 자치령 이주 역사 속의 정착민들의 삶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형성의 역사에서 영국인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만이 있었는지, 식민지 시기로부터 연계된 정착민들의 삶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착민들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를 가져오게 한 19세기 자치령에서의 제국의 잔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누가 오스트레일리아를 건설하였는가?: 영제국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착민들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영국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에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비령뺀이 노릇을 하는 결인들을 포함시켜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패배로 13개주의 미국 식민지를 잃게 되자, 마땅한 죄수 유형지를 찾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8세기 말까지 낡은 배들을 감옥선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감옥선의 운영은 테임즈(Thames)나 포츠머스(Postsmouth), 플라이머스(Plymouth) 등에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죄수들을 가두는 방식이었는데, 죄수들을 낮에는 항만 건설 작업 등의 공사에 투입하고 밤에는 다시 감옥선으로 보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점점 죄수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전염병 등의 발생 때문에 사회불안 야기 가능성이 증가하자, 영국 정부는 이들을 다시 영국 밖으로 추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의 대외적인 위협이 영제국 건설의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중간 기지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적합한 식민지로 부상시키게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에서 유럽 국가로부터 영국의 식민지 소유권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영국 선박에 유용한 물자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13)</sup>

사실, 영국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다양한 원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륙의 주인이나 소유권을 가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스트레일리아란 곳은 누구든 차지할 수 있는 개방된 땅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영국 전함인 뉴 사우스 웨일즈에 도착한 해인 1788년, 무력 충돌 없이 죄수 유배지이면서 또 자유민 개척지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의 식민지로 공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시기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영국인 정착민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였다.<sup>14)</sup>

첫 영국인 이주자들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 발을 내디딘 이후로 투자 자본을 가진 개척 자유민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영국 사회 관행상 토지 소유는 사회적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넓은 토지 소유와 거대 목축업가라는 미래의 청사진이 개척자들을 식민지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민 장려로 인해 퇴직 장교들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자, 스코틀랜드의 소작인이나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부 출신 이민자들이 부유한 자작농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들과 더불어 19세기 전반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총독을 비롯해 군부 지배계층, 치안 판사, 투자 자유민, 상인들과 같은 부유한 정착민들의 집단도 형성되었다. 이들은 목장 경영과 양모 수출 및 고래, 물개 가죽, 식민지 산물들로 무역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 나갔다.<sup>15)</sup> 그리하여 형기를 마친 ‘유형수출신 정착민(Emancipist)’들,

13) F.G. Clarke, 32, 53-56. 클라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기지 공격을 위한 기지와 해군이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항구건설 작업에 죄수들의 유형이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다.

14) *Ibid.*, 51, 59-62. 이는 클라크가 언급했던 것처럼,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을 단지 유목민과 같은 단기 ‘표면 거주자’로 간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함대에는 443명의 선원과 568명의 남자죄수, 191명의 여자죄수(어린이 13명 동반), 해병 160명, 장교와 군속 51명, 군인의 배우자 27명(19명의 어린이 동반), 총독의 개인 참모 9명 등이 승선했다. 1788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보타니 만(Boatany Bay)에 도착한 후, 다시 잭슨 항(Port Jackson)으로 이동하여 1월 26일 영국국기 게양을 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가 식민지가 된 것을 기념하는 축포를 올렸다. 1월 26일은 지금 호주의 건국일로 되어 있다.

15) M. Clark, 53, 55, 65.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Currency Lads)’이 자유 이민자들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증가를 만들고 있었다.<sup>16)</sup> 그렇다면 초기 식민지 사회는 자유 공존 사회였는가?

사실, 영제국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 초기에는 유형기간이 끝난 전과자들에게 가축과 함께 토지가 불하되고 2년간의 양식이 주어졌다. 그러나 투자 개척민들이 유입되면서 식민지 사회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가자, 기득권층은 점차 이 토지 불하 제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1825년 이후부터는 전과자가 최소 20파운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불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결국에는 죄수 갱생을 장려하는 이 토지 불하 제도를 폐지하였다.<sup>17)</sup> 이는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의 경제 · 사회 · 정치적 회생의 길을 막는 것이었고, 죄수들을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처럼 식민지의 상류층을 형성하고자 한 정착민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투자한 식민지 토지와 농장 건설에 죄수 노동력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죄수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이외의 다수의 식민지인들 및 죄수 후손들을 자신들과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를 거대 농장과 토지를 가진 유력 귀족 계급 또는 특권 계급의 형성으로 본국과 유사한 계급 구조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죄수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낙오집단인 자신들의 집단 구성체 내에서 ‘모두가 같다’는 평등 의식을 형성하고 있던 반면, 기득권층에서는 다른 분리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은 “죄수 과거를 가진 영원히 도덕적으로 열등한 계층”으로, 식민지인은 “오염된 사람,” “타락한 본토 태생,” 또는 “영국인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16) Greenwood, 46; M. Clark, 55, 81, 91: : 1819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인구는 2만 6천여 명에 달했으며, 멜버른의 경우, 1840년에 이르면 이미 1만 명 이상의 거주자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하여 1820년대 3만이던 식민지 인구는 1830년대에는 6만이 되었고, 1840년에 이르면 16만, 1850년엔 40만이 되었다; F.G. Clarke, p.90; Peter Miller Cunningham, *Two Years in New South Wales: A Series of Letters*, vol. II, (London: Henry Colburn, 1827), 53, Accessed 2 March, 2014: ‘Currency Lads’는 유형 식민지 시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인들을 가리키는 구식명칭이다. 본고에서는 이맨시피스트들은 ‘유형수출신 정착민,’ 커런시 래즈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로 칭하도록 하겠다.

17) F.G. Clarke, 94.



확산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다.<sup>18)</sup>

이와 같이 영국인 이주민 기득권층 사회에서는 형기 만료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을 차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유형수출신 정착민들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는 ‘대륙에서 출생한 자와 개척을 담당한 죄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유형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에 먼저 정착한 자신들이 식민지 발전과 소유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19)</sup>

우리는 이 국가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과격하고 불쾌하며 잘못된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의 후손들은 필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주인이 될 것이다.<sup>20)</sup>

1826년의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수출신 정착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속하는 것이지 이민자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에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를 확보해야 했던 유형수출신 정착민들이 자유 이민자 기득권층의 상류 사회 독점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다.<sup>21)</sup> 한 예로 이러한 대립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과 기득권층 자녀들, 그리고 죄수 및 자유 이주민들의 후손들에 적합한 교육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존재하는 ‘유해한 죄수들의 영향과 오염된 식민지인의 혈통을 교육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과 편견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죄수나 죄수의 아이는 자유시민이 될 수 없으며 제 3세대까지 가더라도 그들 후손들은

18) M. Clark, 63, 132; F.G. Clarke, 94, 96-97, 102.

19) F.G. Clarke, 97; M. Clark, 59.

20) Robert Howe, *The Sydney Gazette*, 18 July, (1826); F.G. Clarke, 103에서 인용.

21) M. Clark, 65-66, 74; F.G. Clarke, 109.

식민지에서 명예직이나 관직에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까지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공정한 기회와 종교적 특권의 옹호 없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교육정책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했다.<sup>22)</sup> 이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영국인들 사이에서의 타자 의식은 서로 배척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점차 ‘영제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이라는 의식으로 합체되어 가게 되었는가?

### 3. 영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들의 새로운 관계 및 변화들

1820년대 후반에서 1830대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목축업의 확장과 자유노동자 이민의 증가와 더불어 영국의 농업 식민지로서 자유식민지 지역건설이 더욱 확장되어 갔다. 이는 영국 정부가 중산층의 폭넓은 투자를 유인하여 자본금에 비례한 식민지 땅 불하 정책을 채택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사실 이 같은 영국 자산가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행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영국 정부의 계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자산가들의 이민으로 본토의 인구증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식민지 사회건설 및 식민지 사회 도덕성의 개선이라는 이익이었다. 또한, 이민 자산가들이 목축업과 농업으로 죄수 노동력을 흡수하면, 죄수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었다.<sup>23)</sup>

이 같은 식민지 확장과 투자이민 장려는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식민지 사회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타인종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또

---

22)F.G. Clarke, 125-126.

23)Paul Hudson, “English Emigration to New Zealand, 1839-1850: Information Diffusion and Marketing A New World,” *Economic History Review*, LIV, 4 (2001), 681; F.G. Clarke, 101, 109; M. Clark, 65. 그리하여 19세기 중엽에는 이민자들의 편지나 영국 신문들 및 이민협회들의 광고에서 자본가들과 좋은 가문의 사람들의 이민을 독려하는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식민지의 남초 현상으로 인해 여성 이민을 독려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노동자 계급의 이민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의 여성 이민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영국연구』 32 (2014), 138-139를 참고.

다른 타자를 만들게 하였다.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들의 노동력에서 더 나아가 인도 및 남태평양 섬들에서 유입된 타인종 노동자들을 증가하게 하였기 때문이다.<sup>24)</sup> 예를 들면, 19세기 중엽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럽인들이 열대지역 노동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의 설탕 농장과 같은 곳에 노동력 수급 용도로 남태평양 섬 출신의 ‘카나카스(Kanakas)’로 불리는 농장 노동자들을 계약 노동자로 불러들이는 일이 잦았다.<sup>25)</sup> 더욱이 1851년 금광의 발견은 각국의 사람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몰려들게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타인종 유입 이주민들을 증가시키고 있었다.<sup>26)</sup> 이는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이라는 영국인 내부적 타자나 원주민과는 또 다른 외부적 타인종 타자에 대한 대립의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금광의 발견과 생산이 유형지로서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져온 경제적 발전처럼 많은 수의 다양한 타자들의 유입 또한 식민지에 새로운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영국인 정착민들 사이의 분리를 통합하게 하는 변화의 기류를 만들고 있었다. 그 출발은 우선, 금광지역에서의 죄수 노동력 사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의 출현과 ‘식민지 발전을 위해 죄수 노동력이 필수’라는 생각들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본을 축적하게 된 이주 정착민들 및 기득권층으로 하여금 ‘자유 이민자들의 수용이 투자 이민의 증가와 식민지에 사회 · 도덕적으로 이로운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고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에 유형수 수송 중단을 영국 정부에 표명하게 하였고, 결국 영국 정부로 하여금 1853년 오스트레일리아

24) M. Clark, 91-92, F.G. Clarke, 117.

25) F.G. Clarke, 154-155. 이후로 남태평양 주민에 대한 열대 노동력 의존도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

26) Greenwood, 98-99. 금광 발견으로 인해 1851년에 43만 7천명이었던 인구가 1861년에는 1백16만8천명이 될 정도가 되었다.

동부로의 유형수 수송 폐지 발표를 하게 하였다.<sup>27)</sup> 이는 식민지에서의 우수한 영국인종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부유한 유형수 출신 정착민이나 자유 이민자들 모두 영국 정부의 국유지 매각과 이민법 그리고 죄수 유형에 대항하는 ‘공동의 이익’이란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변화를 일게 하였다. 이는 이전에 분리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각각의 집단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점차 수렴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sup>28)</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축업이나 식민지 산물의 수출 또는 금광으로 인해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새로운 땅에서는 누구나 특권을 가졌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내륙 노동자들이나 금광부들은 동료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조건을 가진 평등한 관계라는 의식,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물에 의해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고를 형성하게 하고 있었다. 권리로서의 ‘공평한 대우’라는 의식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sup>29)</sup>

한편, 이민자들 가운데 잉글랜드 출신, 스코틀랜드 출신, 아일랜드 출신에서 오는 영국국교회 및 신교파와 가톨릭교의 신앙적 대립에 의한 충돌의 와해 과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서 ‘식민지 사회의 수준 격하와 정신적 타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던 영국국교회와 신교도들에 대립해 잉글랜드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의 반목이 점차 해결되는 조짐이 일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가톨릭 및 장로교, 침례교 등의 신교도들이 영국국교회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각 종파가 서로의 학교를 각기 구역에 설립하여 성경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였었다. 또 이러한 각 종파의 주장은 정착민들의 이세에 대한

---

27) Greenwood, 98-99; F.G. Clarke, 131; M. Clark, 131-132, 143; Marjory Harper and Stephen Constantine, *Migration and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4. 이 과정에서 유배형 죄수제도와 노예제도의 폐단이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죄수 수송이 감소하다 1868년 중지하게 되었다.

28) M. Clark, 107.

29) F.G. Clarke, 97; M. Clark, 124-125.

첨예한 교육관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다.<sup>30)</sup> 하지만, 이 같은 영국인 내부의 종교적 편견에 따른 타자 의식과 이견들은 통합된 영제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인 배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의를 가져오는 해결책들로 개선되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비종교적 교육’ 형태의 도입<sup>31)</sup>, 이에 따른 보통 교육과 국립 학교제도의 설립, 종파가 아닌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일반 교육’의 실시와 ‘종파별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부 설치’ 등을 들 수 있다.<sup>32)</sup> 결국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 정부의 노력은 식민지에서의 분리된 영국인들에서 응집된 영국인들로 집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인 정착민 내부의 통합의 흐름과는 달리, 타국 노동자들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자본가들의 증가는 무엇보다 영국인 정치가와 시사평론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국인들로 하여금 호주인의 혈통 오염에 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내 영국인종과 타인종이라는 두 개의 대립각으로 정리되는 타자의 통합 과정 또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비율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1861년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지역 인구는 1백 24만 9천명에 달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52%가 해외 출생자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가운데 6십 1만 2천 531명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유입된 타인종에 대한 영국인의 편견은 점차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의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유색인종을 데려오는 것은 장래를 생각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 우리들은 아프리카 인들을

30)F.G. Clarke,125; M. Clark, 93-94, 105-106.

31)M. Clark, 93-94.

32)*Ibid.*, 106, 113-115: 즉,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도덕교육,’ 또 ‘각 종파의 교사에게 똑같은 기회 부여’와 같은 방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종교의 신봉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자는 사고도 발흥되었다.

33)Macintyre, 77; F.G. Clarke, 131; Harper, 41.

데리고 와서 북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한 우리들의 조상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를 후회한다.<sup>34)</sup>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기득권층이건, 노동자들이건, 직업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유입되고 있는 유색인종 노동력에 대해 영국인 정착민들은 위협에 가까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유색인종과 혼혈하게 되면 고유한 영국인종의 품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며, 노동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남태평양이나 인도, 중국 등지의 노동자들의 유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도덕적 저하’를 의미한다는 등의 인식의 형성이었다.<sup>35)</sup>

*Punch* Cartoon, 2 June, 1888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888년 영국의 잡지 펀치(Punch)에 실린 다음의 만화이다. 이 만화는 아시아인들의 이민에 대항하면서 ‘배제’를 강화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회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 즈음 금광으로 유입되는 유색인종들에 대한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 내 금광들과 브리즈번(Brisbane) 등지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식민지역들은 회의를 열어 아시아인들의 이민에 반대하는 조직화한 대항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만화에 삽입되어 있는 말처럼, 당시

34) M. Clark, 116. 이는 1847년의 영국 식민지성의 장관 제임스 스텔판(James Stephen)이 목축 사업에 뛰어났던 인도인 노동자를 데려오자는 스쿼터(Squatter)들의 제안에 반대 각서를 쓴 것이었다. 스쿼터는 영국 국유지를 차용하여 방목 사업을 했던 집단으로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을 개척한 죄수들을 폄하하는 말로 쓰였다, 이들 가운데 후에 점차 빠르게 자산을 갖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 투자 이민이 증가하면서 방목 사업을 통해 부를 형성한 부유한 집단인 스쿼토크라시(squattocracy)도 형성되게 되었다.

35) *Ibid.*, 115-116.

##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가 다른 인종의 노동자들의 유입 이민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밖으로! 당신들은 밖에 있으십시오!

나는[오스트레일리아는] 당신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sup>36)</sup>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존 정착민들은 자신들은 영국인 또는 백인 유럽인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식으로 타인종 노동자들 및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인종적 편견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정착민들이 영제국의 일부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건설하였던 ‘영국인’이라는 의식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 배경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원주민이라는 타자뿐만 아니라 타국의 이주자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타민족 및 타인종으로부터 후대의 오스트레일리아가 백인의 국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백호주의’ 의식으로 연결되게 되는 사고의 행보를 엿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제국의 산물들

살펴본 바와 같이, 제국주의 경쟁에 있어 국제적 권력 면에서 영국의 지위에 대한 위협과 군사기지 건설 및 죄수 유배지의 필요성 등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 건설을 유도하였다. 이후로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의 식민지 확장 및 건설에 필요한 인력 자본의 형성과정에서 영국인들의 자유 이민이 유도되었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가까웠고, 또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의해 획득되어서는 안 되었던 ‘영국인들의 땅’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영국인 이주민들의 이식과 확장이 없으면 소멸 한다’는 오랜 동안 지속된

36) P.J. Marshall, (ed.),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76. 만화의 아래에 삽입되어 있는 원문은 “Outside, Sir! Outside! I’ve had quite enough of you! No admittance, not even on business!”이다.



타자의 위협에 대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책이기도 했다. 인구학적으로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으로 통합되는  
제국의 영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sup>37)</sup>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온 초기 영국인 정착민들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유형이 끝난 죄수들, 즉,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과 공존해야 했기에  
정착 과정에서 영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구분이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길 구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국 사회에서 계층적 사회 지위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던 토지에  
중요성을 부가하면서 이것이 식민지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 확보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도시 거주자였던  
자유 노동이민자들까지도 목축업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땅이라도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규모 농장경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식민지 정착민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에 내재되어 있는 영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영속시키는 ‘신사계급의 창출’을 만들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었다.<sup>38)</sup>

특히, 이들은 노동력으로 유형 죄수들이 사용되고 있던 식민지 사회가  
영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더 나은 계층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  
또는 내륙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갔던 ‘평등주의의 위험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39)</sup> 이와 같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계급  
구분의 유지를 추구하는 사고는 후기 빅토리아 시기까지도 이민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양상으로 지속되곤 하였다.<sup>40)</sup>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자신들의 부모세대들이

---

37)Harper, 41-42. 이는 1901년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형성 이후에  
도 해외 출생자가 단지 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F.G Clarke, 96, 114, 155.

39)*Ibid.*, 114.

40)Alison Leah Pion, “Exporting ”Race“ to the Colonies: British Emigration  
Initiatives in the Late-Nineteenth Century” (Ph.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2004), 76. 피온은 이민 협회나 해외 식민지 사업가들이 영국 식  
민제국에서 계급 구별에 대한 종결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연속성을 강  
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구어 이룩했다고 생각하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에게는 일반 자유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심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타지 출신자들에 대해 호의보다는 반감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했다.<sup>41)</sup> 자신들의 노력과는 달리 양호한 토지 소유의 기회 상실과 후손에의 토지 상속권에 대한 장애물이 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백호주의에서 타인종을 제한하려는 사고의 뿌리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도덕적 갱생과 죄수 유지비의 절약이라는 이면적 이유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로의 투자 이민 및 노동자들의 이민 증가<sup>42)</sup>는 오스트레일리아 방목 사업에 종사하였던 영국인들에 대한 도덕적 퇴보에 관한 우려를 점차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농업 대신 방목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몇 세대 안에 영국인 정착민들이 야만인과 같은 종족’ 될 것이라는 의식까지 생겨나고 있었다.<sup>43)</sup> 그것은 영국인 자신들이 미개척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의 투사였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지역에서의 원주민 살해 및 혼혈의 가능성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사회적 근심의 발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종 노동자들 및 투자 이민자들의 증가를 가져왔던 금광의 발견으로 인한 식민지 사회의 자산적 가치의 증가는 정착민 사회에 새로운 종류의 편견인 인종 생존,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41) M. Clark, 65.

42)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19세기 내내 증가하고 있던 영국 본토의 인구문제 및 과잉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들의 문필영역과 공적 출현: 랑엄 플레이스 서클(Langham Place Circle)』 (Ph.D. diss., 서강대학교, 2014), 37-39를 참고. 19세기 여성 이민에 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133-167을 참고.

43) F.G. Clarke, *The Land of Contrarities: British Attitudes to the Australian Colonies, 1828-1855*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77), 120-144.

관념들을 유통하도록 하였다.<sup>44)</sup> 먼저,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영국국교회 잉글랜드인과 가톨릭 아일랜드인처럼 계층적 정체성과 영국인 가운데에서도 인종적 구별을 함축했던 종파적 분리의식과 지역적 차이가 변화를 겪었다. 이는 영국인의 인종·문화의 재배치라는 목적성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통합적 영국인이라는 가치를 형성하면서 영국인 내부의 인종적 통합의식을 만들어 내었다. 이 같은 의식은 논쟁이 많았던 정착민 이세들의 교육 정책에서 비종파적 교육 방식의 구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사고는 우월한 순수 영국 혈통 유지를 제국의 임무 가운데 위치하게 하면서 19세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영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 정치가들의 이민 정책에 영국인의 재생산과 영국 문화의 이식을 중심 가치로 부상시키도록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이민자들의 선택 및 이송 그리고 재식민이라는 과정은 영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이민자들에 대한 적합성으로 ‘잉글랜드적’이고 앵글로 색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 가치로 판단하게 하였다.<sup>45)</sup>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정착민들은 자신의 모국 여성과 혼인하는 것이 가족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국적 중요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타유럽인들 및 타인종의 영향력을 저하시키고 영국스러움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타난 혼혈아 놀라가 격리 수용소에 보내지는 축약된 이야기의 근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측하게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인 정착민들이 마주쳐야 했던 원주민 및 타인종 이주민들의 유입이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의 기반 형성 과정에서 영국인종의 순수 혈통 유지를 위한 ‘영제국인들’이라는 사고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계급 보다는 영국인과 문화의 재생산적 기여로 제국의 인종적 블록을 건조하고 확장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앵글로 색슨이라는 통합적 인종적 사고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던

---

44)Pion, 56.

45)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13-17; Pion, 50, 77.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이민에 참여했던 영국의 병사들 및 기존의 영국인 정착민들, 자유 이주 노동자들, 남녀 이민자들이 모두 영제국의 확장 속에 새롭게 가치를 얻으며 인종, 국가, 제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 받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적 사고는 19세기 후반 출산의 통제 운동과 20세기 초 우생학의 확산과 합세하여 ‘백인들만의 이상적인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드는 기획을 마련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sup>46)</sup>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여성 이민자들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에서 본고에서 관찰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형성기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처럼, 타자의 땅에서 ‘주인 의식’을 드러내며 혼혈아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애브오리진의 특성을 소멸시키고자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인 정착민들의 인종적 집착에 의한 피해가 우리의 현재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듯이, 선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손들의 반성과 사회의 표시인 ‘영화’라는 매체로 치유되기 힘든, 단지 그릇된 ‘이상’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확장된 ‘우리’라는 의식과 ‘포함하는 우리’의 미래가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서강대학교, minklee@sokang.ac.kr

46) Pion, 77, 106-107. 사실, 우생학은 영국에서 1883년 Francis Galton에 의해 고안되었고,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하여 ‘인종도 인위적 선택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인간 진화의 미래를 인간의 힘으로 일군다는 과학을 근거로 가진 사고였다. 1900년 ‘Mendel의 유전학 재발견으로 급진전’하면서 20세기 전반기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파급되었지만,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Garver KL. and Garver B., “Eugenics: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49 (1991), 1109-1118; 박희주, 「새로운 유전학과 우생학」, 『생명윤리』 vol. 1-2 (2000), 14-28; Kevin Laland and Gillian Brown, 『센스 앤 넌센스』 (*Sense and Nonsense*), 양병찬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14); 박지현, 「양차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서양사론』 no.100 (2009), 65-95; 염운옥, 「1899년-1906년 영국의 인종 퇴화론에 관한 연구: 우생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사총』 367-411; 김호연, 박희주, 「우생학에 대한 다층적 접근: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환경법연구』 27, no.2 (2005), 1-15를 참고.

주제어: 영제국 식민지(British Colony),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커먼웰스(Commonwealth Australia), 영국인의 정체성(British Identity), 인종주의(Racism)

(논문투고일: 2015년 5월 26일, 심사일: 6월 7일, 게재확정일: 6월 16일)

<국문초록>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 민 경

본고는 영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의 형성과 영국인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착민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20세 초 ‘백호주의’와 같은 인종주의적 정책의 근간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 보고 있다. 초기 식민지 시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영국인 이주민들과 내부의 타자들인 원주민과의 투쟁뿐만 아니라 이주 정착민들 사이에서도 죄수들이나 유형이 끝난 정착민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과 식민지 기득권층이 출신으로 인한 분리의식으로 대립 현상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를 걸친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전 과정에서 외부의 타자들, 즉, 타인종 출신의 유입 이민자들이 증가하자, ‘영국인종’, ‘영국문화의 수호’ 더 나아가 ‘백인인종의 보존과 보호’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을 통합하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타자들에 대한 배타적 반응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20세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독립 국가 형성의 과정 속에서 타인종의 유입 이민 제한 및 차별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관찰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주민들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한 글로벌 현대 시대에 타자들을 수용하고 포함시키는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Settlers on the British Colonies and the British Empire:  
With Special Reference of the 19th Century's Australia

Min-Kyoung LEE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Commonwealth Australia an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British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brought the racist policies of Australia such as 'White Australia Policy.' In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not only a struggle between the English and the Aborigines, but also a sense of separation between Emancipists, their descendants, (or colonial settlers of convicts) and the free settlers.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at the continent of the period were in conflict with Emancipists. However, throug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ustralia during the 19th century,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 namely 'others,' made unite British immigrants themselves with the concepts of 'British nation' and 'defender of the British culture,' by extension,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hites Caucasian'. And this type of idea brought their taking an unfriendly and exclusive response to the others. It finally makes us observe that this kind of practice would form the ground base for the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restriction of immigration of the different races i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independent Australia during the 20th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us take the broad concept of "We" which includes and accepts oth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when emigrants and immigrants are frequent, even here in Korea.